

국경없는의사회

MÉDECINS SANS FRONTIÈRES



2017
올해의 사진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0614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7길 7
 조이타워 5층
 전화 02-3703-3500
 팩스 02-3703-3502

- www.msf.or.kr
- facebook.com/msfkorea
- @msfkorea
- @msfkorea
- youtube.com/msfkorea
- @국경없는의사회
- blog.naver.com/msfkr

- 사무총장** 티에리 코펜스
- 대외협력 보좌관** 하신혜
- 현장인력 채용팀** 줄리 페통
김은선
- 재무/인사/사무팀** 김알렉시
김정민
박정인
신은경
- 후원개발팀** 윤지현
김지영
김희로
신한나
문상원
정유정
- 홍보팀** 윤주웅
김미정
심연우
이주사랑
정지향
최여름
- 디자인** slowalk

목차

- 03**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주민 안전한 곳을 찾아서...
- 04** 시리아 6년간 이어진 전쟁과 폭력
- 06** 남수단 태어날 때부터 계속된 분쟁
- 08** 예멘 콜레라 유행기에 벌어진 전쟁
- 10** 방글라데시 생존을 위해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
- 12** 현장인력 채용 A to Z
- 13** 후원 소식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5년 전, 국경없는의사회는 다양한 인도적 위기에 대응하는 응급 의료 지원에 보탬이 되고자 한국에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날이 더 많은 한국인 구호 활동가들이 국경없는의사회 활동에 동참하고 한국 대중이 재정적 후원에 참여하게 된 것은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정세가 불안하거나 분쟁이 벌어지는 지역으로부터 탈출해 떠난 것이었습니다. 시리아처럼 장기간 분쟁이 이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분쟁지대에서는 의료 시설을 포함한 민간 기반시설들이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무력 분쟁이 이어지면서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곳들도 있었습니다. 예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올해 예멘에서는 역대 최악의 콜레라 유행이 일어나 무려 80만여 명의 의심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콜레라 유행이 최고조에 달하던 중 국경없는의사회는 매주 평균 1만 1139명의 환자를 입원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콜레라 치료센터 37곳에서 10만 명이 넘는 환자를 돌봤습니다.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민간인들은 기본적인 의료 지원이 끊긴 채 살아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사람들이 미얀마의 폭력사태를 피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들어와 몹시 열악한 환경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비닐 시트와 대나무 막대를 이용해 살 집을 마련한 이들도 많았지만, 그마저도 없어서 도로 한 칸이나 질퍽한 돌 근처에 잘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거처와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지중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주 위기 또한 중대한 우려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수백 명이 유럽으로 들어가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 횡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구조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자 계속해서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한편, 리비아와 이탈리아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난민, 망명 신청자, 이주민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400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남수단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3년 반이 넘게 지속된 격렬한 내전 속에 인구 절반이 고국을 탈출해 주변 여러 나라로 탈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우리 팀들이 분쟁과 피난에 휩쓸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들은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살피고, 부상자와 응급 환자를 치료했으며, 만성 질환 환자를 돕는 한편 각종 질병 발생에 대응하면서 특히 예방접종 캠페인을 실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또한 식수와 필수 구호품 등 의료 외에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물을 지원하고자 노력했고,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을 전해 주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에리 코펜스



티에리 코펜스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사무총장

COVER STORY 레바논: 베카(Bekka) 지역에 위치한 난민캠프에서 취약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지원 프로젝트에서 활동하는 서정아 활동가 ©Joosarang Lee / MSF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이주민

안전한 곳을 찾아서...

2017년에도 난민들과 이주민들은 폭력·전쟁·가난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아 육지와 바다를 거쳐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지중해에서 150여 차례의 구조 활동을 실시해 약 2만 명을 도왔습니다. *2017년 1-9월 기준



“ 유럽에 오면 사람들이 인정을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리아보다 여기가 훨씬 더 살기 어렵네요.
 - 아부 자베르

1 국경없는의사회 수색·구조 팀원들이 지중해에서 고무보트에 타고 있는 곤경에 처한 130명의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 주는 모습.

2 공습으로 인해 집이 무너진 후 시리아 알레포(Aleppo)를 탈출해 그리스 사모스(Samos) 섬에 온 아부 자베르(36세), 아내 마디하(31세), 그리고 어린 자녀들.

3 리비아 트리폴리(Tripoli) 근교에 있는 여성 전용 소르만(Sorman) 구급센터에 구급된 여성들과 아동들. 지중해를 건너려다 붙잡혀 구급된 많은 사람들은 가족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6년간 이어진 전쟁과 폭력

6년 이상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위태로운 인도적 위기에 처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난민 처지가 된 시리아인 수백만 명은 의료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에게는 전염병, 만성질환, 산부인과 질환, 심리적 충격에 대응할 의료 지원과 예방접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의 코바니(Kobane)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아흐마드 알-물라.

2 시리아 북부 라카(Raqqa)에서 북쪽으로 약 60km 거리에 있는 아인 이사(Ain Issa) 캠프에 머물고 있는 피난민 가족. 전투를 피해 떠나 온 약 15,000명이 이 캠프에 피신했다.



©Jamal Bajit / MSF



©Chris Hubby



©Chris Hubby



©Agnes Vanrane-Loda



©Chris Hubby

3 시리아 북부 라카 근처에 있는 아인 이사 피난민 캠프에 마련된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4 시리아 북부 라카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인 이사 캠프. 국내 실랑민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다.

5 시리아 북부 아인 이사 캠프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직원 에일리가 피난민 소녀를 진찰하고 있다.

남수단

태어날 때부터 계속된 분쟁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남수단은
근 4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곤경에
처해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위기는 외부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남수단
사람들 수백만 명은 집을 떠나야만
했고, 그들 중 다수가 우간다 등
주변 국가로 피신했습니다.



1 양게르 가랑이 아들을 안고 움막 앞에서 있다. 가랑은 아들을 데리고 아웨이(Awei)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 찾아왔고, 아이는 그곳에서 말라리아와 빈혈 치료를 받았다.

2 우간다에 있는 비디비디(Bidi-bidi) 난민캠프에서 뛰노는 아동들. 근 100만 명의 남수단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우간다로 피신했고, 이로써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3 남수단 리어 카운티(Leer County) 내 타케르(Thaker)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야외 진료소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아픈 친척 여성을 살피고 있는 사람들.

4 남수단 리어 카운티 내 타케르에 위치한 야외 진료소에서 국경없는의사회 의료진이 한 어린 아동의 몸무게를 측정하고 있다.

5 남수단 리어 카운티 내 타케르에 국경없는의사회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경없는의사회 의사 필리파 페트.

예멘

콜레라 유행기에 벌어진 전쟁

파편 속에 앉아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소속 경비원 파예즈 나스르. 사다(Sa'ada) 시에 있던 나스르 부모님의 집이 폭발 속에 무너져 그의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갔다. ©Florian Serfex / MSF

내전으로 인해 예멘의 보건 시스템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아랍 최대 빈곤국인 예멘은 역대 최악의 콜레라 유행까지 겪었습니다. 보고된 의심환자만 80만 명이 넘었고, 국경없는의사회는 콜레라 치료센터 37곳에서 활동하며 그중 10만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1 예멘 하이단(Haydan) 병원 입구에 붙어 있는 “무기 반입 금지” 표시.

2 예멘 알 그와디(Al Ghwadi) 마을의 한 가옥 밖에 모여 있는 아동들. 지난 5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콜레라로 숨지게 되면서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어졌다.

3 사나에 위치한 알 코웨이트(Al Koweit)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카우캅 알 사라피. 예멘 의료진 대다수가 그렇듯 사라피도 일을 시작한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받지 못했다.

방글라데시

생존을 위해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족 난민

50만여 명의 로힝야(Rohingya)족 난민들이 폭력을 피해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머물 수 있는 곳, 깨끗한 물과 의료 지원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1 방글라데시 쿠투팔롱(Kutupalong) 난민캠프에 새로 들어온 로힝야족 난민들이 짐 지을 물건을 모으고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 아미나 카툰의 친척들. 로힝야 난민이었던 아미나 카툰(60세)은 굶주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었다. 발루크할리(Balukhali) 난민캠프에서 시신을 묻기에 앞서 친척들이 시신 곁에 모여 함께 애도하고 있다.



©Dar Yasin / AP



©Hoise Saman / Magnum Photos for MSF



©Antonio Faciolongo



©Bernat Armanque / AP



©Antonio Faciolongo

3 나프 강을 건너 방글라데시 국경에 도착한 로힝야족 가족. 나프 강은 콕스 바자르(Cox's Bazar) 인근 테크나프(Teknaf) 지역에서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다.

4 방글라데시 쿠투팔롱에 있는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환자.

5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난민캠프 인근에 위치한 국경없는의사회 진료소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로힝야족 환자들의 모습.

구호 활동가 채용에 대한 모든 것

A. 현장 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활동 기간은 각 현장 상황에 의해 정해지므로 매번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현장 활동에 참여하는 구호 활동가는 반드시 6~12개월의 최초 활동 기간을 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과의, 마취과의, 산부인과의 등 몇몇 분야에서는 현지 상황에 따라 6주에서 3개월 동안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B. 배우자 혹은 가족과 함께 현장 활동지에 갈 수 있나요?

국경없는의사회의 기본 활동 원칙과 현장 상황, 근무 환경을 고려했을 때, 배우자 혹은 기타 동반자와 함께 활동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C. 활동지를 제가 정할 수 있나요?

활동지는 구호 활동가의 경력 사항과 현장의 필요를 고려하여 정해지므로 지원자가 직접 특정 국가나 장소를 정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D. 한국인을 받아들이는 국가들은 제한되어 있나요?

국경없는의사회의 인력 풀은 전 세계의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소에서 공유됩니다. 다만 한국인의 경우는 한국 정부에서 정한 여행 금지 국가들이 있어 해당 국가로는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E. 활동지 배치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모든 채용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에서 활동가의 경력 사항과 현장의 필요를 고려하여 활동지를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출국이 가능한 시기로부터 최소 3~4개월 전에 지원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F. 국경없는의사회는 파견 이전에 교육 / 훈련 기회를 제공하나요?

네, 모든 구호 활동가는 활동지로 출국 이전에 약 3일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가, 로지스티션의 경우는 파견 이전에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별도로 받게 됩니다. 또한 국경없는의사회는 업무 표준 절차에 관련한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현장인력 개발국 김은선 매니저에게 채용 전반에 대해 가장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매뉴얼을 제공하며 현장 활동 중에도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해당 국가에 있는 코디네이션 팀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G. 현장 활동에 관심이 있어서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싶어요.

- 1 정기적으로 열리는 현장 활동 및 채용설명회에 참석해보세요. 구호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현장 이야기 및 구호 활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설명회 일정 확인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msf.or.kr/info-sessions)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facebook.com/pg/msfkorea/events)

- 2 홈페이지 내 채용 웨бина 영상을 통해 현장 활동과 채용 과정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섹션은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 웨бина 영상 보기 (msf.or.kr/webinar)



국경없는의사회 소개와 채용절차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은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구호활동가 채용-자주묻는 질문'을 확인해주세요(msf.or.kr/work-field/faq)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유산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국경없는의사회 유산기부 프로그램은 평생 일구어 놓은 꿈과 노력으로 지구촌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사회환원입니다.

“저는 10년차 농협 대리입니다. 신입 때부터 제각각 사연을 갖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를 받는 어려운 분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내가 조금만 더 여유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도울 텐데'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차가 쌓여도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제게 현실에서의 여유는 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마저 돌아가셔서 혼자가 되었고, 문득 더는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활에서의 '여유'는 결코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소액이나마 정기후원을 하게 되었고, 또한 제 생명보험금의 수익자를 국경없는의사회로 변경했습니다. 현재의 저는 넉넉지 않아 많은 사람을 도울 순 없지만 죽어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닌 제 생명보험금이 어려운 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제 사후에 후원금이 뜻깊은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정미아 후원자님

보험기부

“저는 공릉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산기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올해 국경없는의사회와 연이 닿아 유산기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TV에서 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저의 손주 같은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잦은 내전으로 의료진도 부족한 아프리카와 중동의 상황을 보며 6.25 전쟁 때 우리나라도 에티오피아로부터 도움 받은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분쟁지역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주고 싶었고, 또한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것 모두를 사회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유산기부에 참여한 이후 저의 삶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국경없는의사회 직원분들과 아파트 입주자 대표님, 관리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언공증

정봉호 후원자님



채용 분야

의료 분야

일반의, 내과의, 가정의학과, 소아과의, 외과의, 정형외과의, 응급의, 산부인과의, 마취과의, 조산사, 간호사, 수술장 간호사, 약사, 정신과의, 심리학자, 역학자, 보건 홍보 담당자, 코디네이터

비의료 분야

로지스티션, 행정 담당자(재정/인력), 코디네이터

기본 자격 요건

- ✓ 최소 2~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 파견 즉시 업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분야별로 상의할 수 있음)
- ✓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 상황에 대한 융통성·적응력
- ✓ 다국적·다문화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며 일할 수 있는 능력
- ✓ 현지 직원 감독·훈련에 대한 경험과 관심
- ✓ 영어/프랑스어 구사력
- ✓ 국경없는의사회의 원칙과 가치에 대한 책임감

활동가의 말, 말, 말

지원 동기

투명하게 후원금을 사용하는 단체를 찾다 보니 국경없는의사회가 답이었습니다.

김태영 행정가 | 활동 국가 스와질란드

현장에서 일하며 가장 힘들었던 순간

처음에는 같은 문화권에서 온 동료가 없어서 고립감이 가장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치료가 불가능해 희망이 없는 환자들을 봤을 때 정신적으로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박선영 수술장 간호사 | 활동 국가 남수단, 요르단

현장에서 일하며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아무래도 의사로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응급 환자들을 치료하고 살렸던 순간이지요. 영양실조·쇼크상태로 온 환자·감염으로 시력이 희미한 상태로 온 환자 등 다양한 질병을 앓는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좋아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뻐요.

유서희 내과의 | 활동 국가 에티오피아, 남수단

어떤 유산기부가 있나요?



기부자의 유언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사망하여 유언 공정증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기부자의 재산이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됩니다.

유산기부 문의 02-3703-3554, austin.mun@seoul.msf.org | 유산기부 참여 msf.or.kr/special('유산기부' 선택)



매월 받으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경없는의사회에 정기적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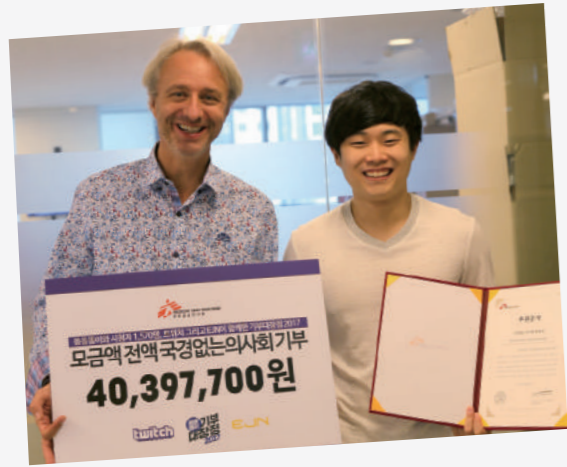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국경없는의사회로 지정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신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국경없는의사회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또는 상장주식을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 기업 소식

트위치 코리아와 인기 스트리머 '똥똥똥이', 자전거 국토 종주 기부 프로젝트 통해 후원금 전달



똥똥똥이 기부대장정 2017

'트위치 코리아'(Twitch Korea)와 트위치의 인기 스트리머 '똥똥똥이' (정태준)는 지난 8월 25일~27일, 사흘 동안 서울에서 부산까지 547km 자전거 국토 종주를 실시, 1km당 1만원을 적립해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기부대장정'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모인 시청자 1570명의 기부금, 똥똥똥이 개인 기부금, 트위치 코리아 기부금 1천 1백만 원, 스트리밍 툴 제공을 도운 '이제이엔'(EJN)의 수수료 전액 부담 등을 합해 총 4천 39만 7700원을 국경없는의사회에 기부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가 긴급 의료 구호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트위치 코리아와 똥똥똥이, 후원에 참여해 주신 1570명의 시청자와 이제이엔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업 후원 및 파트너십 문의
02-3703-3573, corporate@seoul.msf.org

후원자 공지

2017년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한 해 동안 생명을 살리는 나눔에 동참해 주신 후원자님, 참 고맙습니다.



후원자님의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자세한 발급 방법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STEP 1. 개인정보 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후원자님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바르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 또는 후원자센터를 통해 후원자님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 msf.or.kr (로그인 > 회원정보)
후원자센터 02-3703-3555 (평일 9~18시)

STEP 2. 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경없는의사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중순 이후에 이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msf.or.kr (로그인 > 회원정보 > 기부금 영수증)

*국경없는의사회는 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따로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위해 달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중한 생명들이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와 세계의 응급실로
함께 달려가 주세요.

후원문의 02-3703-3555 | 문자기부 #1971 (3,000원)

RUN FOR 캠페인을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국경없는의사회와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운동화끈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경없는의사회](#) 를 검색하시거나 msf.or.kr/runfo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1971년 의사와 기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 지원에는 정부,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국경없는의사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의료 윤리와 공정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이 원칙들은 인종, 종교,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활동을 인정받아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우간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비디비디(Bidi-bidi) 캠프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에게 식수 공급을 위해 '분수 우물'(자연 압력으로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게 만든 우물) 여러 곳을 설치했다. 이 우물에서 확보한 물은 캠프 곳곳의 물탱크로 배급된다. 난민캠프에서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이곳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꾸준히 개발해 나가고 있다.